민간요법 집대성한 북한판 사전

여강출판사 펴냄「家庭東醫大全」

북한 '동의과학원'이 집필을 맡아 '과학백과사전출판사'에서 발행한「家庭東醫大全」이 서울의 맞춤법에 따라 재편집되어 여강출판사에 의해 간행되었다. 경희대 한의과대학 안덕균 교수가 해설을 맡은 이 책은 북한 최고의 동의학연구기관인 동의과학원이 최근까지의 연구성과와 수십 년 동안의 임상치료경험을 집대성한 '민간요법 가정동의백과'이다.

기존의 민간요법 관련서들은 몇가지 특수질환에 대한 약물치료만을 다루고 있는 데 비해, 이 책은 거의 모든 질병들에 대해 병의 원인과 증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뿐더러 운동·식사·뜸·부항·안마·찜질·덕수(떨어지는 물을 맞는 요법)·자극·목욕 치료 등 증세에 맞는 섬세한 처방전을 제시해 주목을 끈다. 그리고 환자가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 며칠이면 완쾌될지와 먹거나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서도 꼼꼼히 밝혀놓아 환자의 심정을 미리 대변한 사려깊은 집필도 돋보인다. 안덕균 교수는 그리하여 "독자들은 이 책 하나만으로도 집안에 한의사 한 분을 모셔놓은 듯한 든든함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해설'에서 말한다.

이 책은 '건강장수와 민간의료' '증상과 민간의료' '병과 민간의료' '구급민간의료' '몇가지 민간의료법과 민간약 상식'으로 구성돼 있다. 부록으로는 침혈도, 압통점과 반응점, 보약과 중요장기의 병에 쓰이는 민간약 그림이 실려있다. 특히 '찾아보기'에는 치료법과 약 쓰는 법, 적응증들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을 때에는 화살표로써 해당부문을 찾아보게 하고 있다.

예를들어 '고혈압병' 항목을 찾으면, 우선 정의, 발병원인, 증세, 민간의료로 치료할 수 있는 단계가 소개된다. 이어 일곱 가지 치료법이 나온다. 치료식사·약물치료·뜸치료·부항치료·한증치료·안마치료·운동치료가 그것들이다. 약물로는 진달래꽃·익모초·누리장나무·두충·지렁이·다시마 등 17종이 그 쓰임새와 제조방법, 복용량 등에 이르기까지 세세히 열거된다. 안마치료법으로는 백회혈과 인영혈을 누른다.

원저자들의 머리말에 의하면 이러한 민간요법들은 "그 치료효과가 입증된 것들"이며, 해설자 안교수의 "솔직한 표현"에 의하면 북한의 한의학은 우리의 그것보다 우등하므로 이 책은 비단 환자뿐 아닌, 연구자들에게도 유용할 것으로 진단된다.

여강출판사 / A5신 / 872면 / 20000원

독자를 필자로 이끄는 수첩형 단행본

현암사 펴냄「건강다이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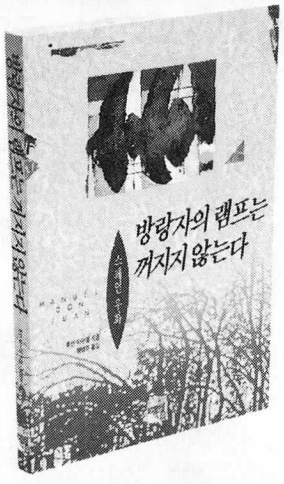
수첩을 책처럼, 역으로, 책을 수첩처럼 엮은 '단행본'인「건강 다이어리 Health Diary」가 출간됐다. 이 '수첩'이 책일 수 있는 근거는, 우선 단행본으로서 가장 무난한 크기인 A5신 판형이라는 점과 하드카바를 함으로써 '무게 있는 수첩'처럼 보인다는 점과 현암사에서 펴냈다는 점이 전부일 듯 싶다. 책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들 중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월등히 많은 '모자란 책'이라 할만하다. 편·저자가 없고, 머리말이나 해설·후기 등이 없으며, 본문은 물론 여백이다. 그러나 "이 책의 판권은 현암사에 있으므로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라는 경고문은 있다.

「건강 다이어리」는 표지를 넘기면 1993년으로부터 1996년에 이르는 달력으로 시작된다. 뒤이어 월별 스케줄을 짜는 여백들이 펼쳐지며, 일별 다이어리난이 전체 볼륨의 2/3 가량 계속된다. 뒷표지를 넘길 때까지 단 한 곳도 페이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페이지는 알 수 없고 알 필요도 없으나 뒷부분 약 삼사십 쪽에 걸쳐 비로소 건강에 대한 '정보'와 '상식'과 '지식'이 소개된다.

그 차례는 '알아둡시다—의료기관 이용절차' '평생건강관리법—제때에 예방접종을 한다, 건강진단, 알아두어야 할 연령별 건강관리, 올바른 식생활' '건강점검—건강상태 평소 체크법, 암 자가체크법' '건강정보—알아두면 도움되는 응급처치법, 증세별 민간요법, 성인병 치료를 위한 식사요법, 술과 담배, 생활속의 음악활용법' '운동과 건강—운동의 효과 및 방법, 간단히 할 수 있는 생활체조' '특수클리닉, 응급병원, 전국병원'이다.

「건강 다이어리」가 책이라면 그것은 독자를 필자로 전화시키고자 의도하는 것 같다. 사전의 범례에 해당하는 책의 사용법이 책마다 간지처럼 끼워진 「건강 다이어리」를 이렇게 써보세요'에 있다. 거기에는 "일기장으로 사용"할 것과 "매일의 건강기록을 함께 써 두시면 건강을 체크하는 데 소중한 기록이 될 것"이라는 조언과 "업무용 다이어리로 쓰셔도 좋다"는 권유들이 열거된다. "일별 다이어리난에는… 혹시 아픈 날이면 증상과 병명을 쓰시고,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써 두신다면 훗날 큰 병을 예방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자상한 배려와 "주소록이 넉넉히 들어 있으므로 차근히 적어 두셨다가 선물의 답례라든가 연하장 등을 보내는 데 이용하시"라는 등 다이어리의 다목적 활용가능성을 뽐내기도 한다.

현암사 / A5신 / 약 200면 / 5000원

신간
당신의 思考의 키를 재어 보십시오
세번을 대하면 당신의 삶은 세번의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스페인 왕자가 쓴 인생을 엮는 지혜 모음집!


I. 로. 크 시리즈 컬러예화집
짧다! 쉽다! 깊다! 맑다!
가슴으로 읽는 현대판「명심보감」
진실의 광장에서 나눌
대화를 준비하세요!
삶의 지혜와 감동의
寸鐵殺人의 메시지
도서출판 데레임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286
TEL : (02) 268-4902
FAX : (02) 277-6946

영미문학 대표하는 92년 최고의 책

도나 타트 지음 「비밀의 계절」

당대의 외국문학작품의 번역·소개는 거개가 해당국의 우수한 문학상을 수상하는 등의 '유예'와 '검열'의 기간을 거친 후 이루어지는 것이 상례이다. 수상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번역출간한 경우는 흔히 '적시타'를 쳤다고 회자된다. 선정기관의 지명도와 명망은 우리나라 독자의 구매욕을 촉발시켜 혹 상업적인 성공으로 이끌기도 하거니와, 졸속번역이라는 혐의에서 한껏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초판 발행일이 92년 12월 5일로 되어 있는 「비밀의 계절(상·하)」은 미국에서 '완제품'이 채 나오기도 전에 역자 이윤기씨와 도서출판 까치 편집진들이 나름의 안목으로 선정, 번역해낸 드문 경우의 수에 속하는 책이다. 이 소설의 번역 대본이 92년 9월에 10여개국에서 동시출간하기 위해 사전에 배포한 가제본 판본이었다는 '옮긴이의 말'을 빌자면, 이 책은 '동시통역본'이라 할 만하다는 점에서만도 충분히 화제적이다. 더구나 이 소설이 영국 「더 타임즈」紙의 서평전문지 「리터러리 서플리먼트(TLS)」가 뽑은 '92년 세계 최고의 책' 중 영미권에서 출간된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선정되었다는 기사(본지, 93년 1월 20일字)는 우리나라 번역출판문화의 성숙도의 막대그래프를 성큼 끌어올린 것이라는 재해석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도 화제적이다.

본지의 기사를 인용하자면 "「뉴욕타임즈 북리뷰」의 '올해의 책'이 영미권에 치우쳐 있고 내용도 비교적 대중성이 높은 데 비해, 「TLS」의 것은 동구권까지 포함한 균형된 시각과 전문성이 특징이다. 미국의 프랑스史 전문가 사이먼 샤마, 프랑스 작가 미셸 투르니에, 영국 문학평론가 테리 이글턴 등 지성인들이 선정한 92년 최고의 책"이다. 그리고 "「비밀의 계절」(원제는 'The Secret History', 본지에는 「비밀스런 역사」로 '직역'되었음)은 도나 타트가 무려 8년만에 완성한 역작으로, 모범적인 생활을 하던 대학생이 어느날 충동에 사로잡혀 혼란에 빠져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아한 필치가 돋보인다"는 선정자의 평가도 부기되어 있다.

'옮긴이의 말'에 의하면, 금년에 28세인 아름다운 여류작가 도나 타트는 처녀작인 이 작품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바람에 굉장히 바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여류작가의 섬세한 표현을 번역하는 괴로움을 자기고백하는 역자의 신음소리는 오히려 번역문장의 튼실함을 신뢰케 한다.

까치 / A5신 / 각 382면 / 각 5000원

성인물 지향하는 철학동화 그림책

'젊은이를 위한 짧은 이야기' 시리즈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철학적 동화 그림책'인 「다시 사랑으로 흐르는 강」과 「금빛자유」가 출간되었다. "젊은이를 위한 짧은 이야기"라고 명명된 이 시리즈는 그러나 일러스트 분야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내는 작가들의 완성된 그림, 함축된 언어와 가슴의 밑바닥을 긁는 깊은 문장, 여백으로 남겨진 공간마저도 의미없는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운 편집기술 등이 어우러져 독자층의 외연을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책의 기능적인 측면과 함께 책 그 자체로서의 가치 창조를 목표로 기획되었다"는 이 시리즈는 그래서 "읽는 즐거움과 보는 즐거움, 책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평을 듣는다.

첫째권 「다시 사랑으로 흐르는 강」은 문명에 의해 파괴되는 생명의 현장을 지구촌 구석구석 답사한 바 있는 유만상씨 글과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한 색감과 터치로 그려낸 이건모씨의 서정시 같은 그림이 만나 인간의 욕망과 비도덕이 훼손시킨 지구의 모습을 투영한다. "강이 있었습니다"란 7음절이 두 페이지 한복판을 차지하며 시작되는 이 책은 뒤이어 역시 두 페이지에 걸쳐 나뭇가지 끝에 걸린 태양과 그 밑에서 미소짓는 물새의 그림이 펼쳐진다.

「황금깃털」「사다리가 놓인 窓」의 작가 서영은씨가 쓰고 전성보씨가 그림을 맡은 「금빛자유」는 "달걀 속에서 병아리가 나온다는 충격적이고도 신기한" 이야기. 그저 먹는 것일 뿐이라거나, 혹은 무생물로 착각하기 쉬운 '어른의 달걀'과는 다르게 작가의 어린 시절에 충격으로 다가왔던 경험이 작가 특유의 필치로 전달된다. 보이지 않는 형상과, 언어로써 표현하기 어려운 추상적 개념을 아름답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해석한 전성보의 그림 역시 可觀이다. '예쁜이'라는 달걀이 세상에 태어나, 자기 자신에 대해, 그리고 바깥 세계에 대해 남다른 호기심을 갖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흐물거리는 액체에 불과한 달걀이 병아리로 변해가는 여러 상황이 묘사된다. 서영은씨는 '작가메모'를 통해 "끝내 나는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을 보지는 못했으나, 그 관계를 통해 사랑을 배움으로써, 어렴풋하게나마 달걀의 비밀을 깨칠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은 내가 배운 사랑의 방식으로 달걀 속에 들어 있는 병아리의 비밀을 풀어 본 것입니다"라고 적고 있다.

동아출판사 / B5변형 / 각 76면 / 각 6000원

운동생체역학

D. A. Winter 저, 강곤 역, 신국판, 4,500원

이 책은 의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생체역학의 기초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도에서 번역되었다. 따라서 기계공학, 전자 및 전기공학을 배우는 학생들도 역시 큰 어려움이 없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생리학, 재활의학을 비롯한 인체(환자)의 움직임을 계속하여 관찰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본적인 공학적 지식을 전달하는데 도움이 된다.

토질역학

윤충섭 외 8인 공저, 4.6배판, 양장, 12,000원

이 책은 여러 저자들의 오랜 강의경험과 고도의 실무기술을 습득한 기술자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집필된 것으로, 한계상태의 개념이나 토질동역학 문제와 같은 새로운 이론과 이와 관련된 신공법을 요약하여 다루었다. 유효응력과 지중응력분포에 대한 것을 앞장에 두어 압밀, 전단, 토압 등의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초지반 처리에 필요한 사항도 첨가하였다.

국제정치학

송영우 저, 신국판, 350면, 6,500원

오늘날 국제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국제정치를 조명해야 그 현상을 잘 파악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국제환경의 변화는 더이상 군사력만으로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해결하는 것이 어렵게 됨을 지적하고 경제에 기초한 시각에서 국가의 행위, 국가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해야 오늘날의 세계흐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현대인의 식생활과 건강

송병춘·맹원재 공저, 신국판, 316면, 5,500원

이 책은 식생활이 점차 풍요로와지고 또 서구화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영양섭취의 불균형과 잘못된 식습관이 유발시키는 각종 영양성 질병과 성인병의 발병원인을 쉽게 설명하고 또 올바른 식생활을 통해 이를 예방 및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건국대학교출판부 서울특별시 성동구 모진동 93-1
도서주문 450-3893 FAX : 457-7202